

# 번역대중소설, 왜 문제삼아야 하는가

## 베스트셀러화현상 진지하게 분석한 논문 두편 잇달아 선봬

문단과 학계에서의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여담' 정도로 다루지던 것이 현실이었다. 시중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그저 고급하지 못한 독자들의 개선돼야 할 독서경향으로, 관심밖의 일로 여겨져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두개의 문학시론은, 대중소설에 대한 이들의 폭넓은 관심과 진지한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임진영씨(연세대 강사)의 '즐길 수 있는 지식과 공포의 세계'('민족문학사연구' 제2호), 설준규교수(한신대 영문과)의 '잘 팔리는 번역소설의 상업성과 문학성'('창작과 비평' 92년 가을)이 그것으로, 특히 베스트셀러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번역소설의 본질에 대한 성실한 비판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현재 서점가를 누비는 번역대중소설의 특성과 독자들의 성향을 알려주는 글이어서 여기에 발췌, 소개한다.

### 「잘 팔리는 번역소설의 상업성과 문학성」

문학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좋은 작품의 참으로 훌륭한 면모보다는 상업적으로 유통할 만한 부분이 과대포장되어 소비되고, 그런 와중에 작품의 진정한 뜻이 결국 유실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요즘 집중적으로 번역되어 팔리고 있는 소설들은 필자가 읽어본 한도 안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류로 구분됨직하다. 첫째,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아이작 아시모프나 마이클 크라이튼, 아서 클라크 등의 과학소설(또는 공상과학소설)처럼 대다수 국내독자들에게는 새로 소개되는 소설형태. 둘째, 오래전부터 고정독자를 확보한 시드니 셸던류의 구대의연한(?) 음모 모험소설. 셋째, 토마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이나 「래드 드래건」처럼,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미스터리물에 이상심리와 엮기성을 선정적으로 결합시킨 경우. 마지막으로 엔타일러의 「종이시계」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별다른 가치없이 담담하게 풀어나간 듯한 소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연작은 단연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이차대전 전에 집필이 시작되어 얼마전 작가가 죽기전까지도 이어지던 작품이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흡인력은 삶의 일상에서 독자를 아득히 떼어놓는 능력이다.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초월되는 듯한 착각에 독자가 흡연 빠져드는 것이다. 이 소설은 이렇듯 현실에서 되도록 멀어지는 방식으로 현실과 관계 맺고, 현실과 독자를 떼어놓음으로써 현실과

### 잘 팔리는 번역소설들 대다수는

몇몇 기발한 착상을 중심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열하는 구성방식을 취하면서

줄거리 전개나 인물의 논리성에는

부차적 의의를 둘 따름이다.

또한 주제적인 사고와 그것에

근거한 판단을 유보하려는 독자의

성향에 영합하면서 동시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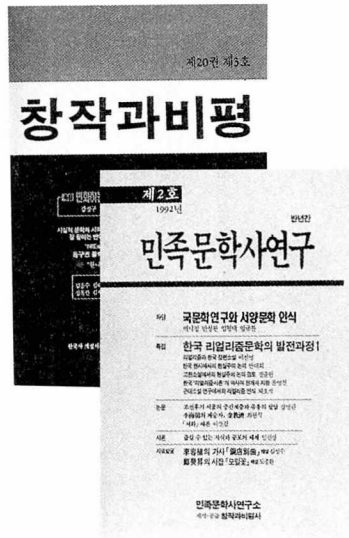
성향을 조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자의 관계를 구성해내고 있는 쪽이다. 아시모프보다 한세대 뒤의 작가인 마이클 크라이튼의 「유라기 공원」은 과학기술의 윤리성 문제를 다소 비판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파운데이션」과 일단 구분되고 그런 점에서 현대 과학소설의 또다른 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넓게보면 과학기술이 지닌 내적 문제성, 좁게 보면 생태계를 제어하려는 인간욕구의 덧없음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이 결국 문제인 셈이다.

국내에도 과학소설 예찬론을 피력하는 식자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필자로서는 이 소설형태가 과연 일부분에 내세우듯 새로운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담지한 건지 어떤지를 일반론의 수준에서 운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가령 본격적인 과학소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파운데이션」이나 「유라기 공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장르에 크게 기대할 게 뭐 있을까 하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첫째, 이들 소설들 대다수는 몇몇 기발한 착상을 중심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열하는 구성방식을 취하면서 줄거리 전개나 인물의 논리성에는 부차적 의의를 둘 따름이다.

둘째, 표방된 주제와 작품의 전체적 의미사이에, 또는 작품이 풍기는 분위기와 실제내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셋째, 영상매체적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주제적인 사고와 그것에 근거한 판단을 유보하려는 독자의 성향에 영합하면서 동시에 그 성향을 조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넷째, 이런 경향들의 결과로, 작품의 현실연관성을 희석화하거나 왜곡된 현실에 대



한 불만을 병적인 경로를 통해 해소한다거나 또는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이들 소설들이 불러일으킨 공산이 크다. 넷째 경향은 「종이시계」같은 본격소설에 어느정도 해당된다.

### 「즐길 수 있는 지식과 공포의 세계」

재미는 재미, 가치는 가치라는 식의 태도와 스쳐지나가는 단상적 비평 속에서 실은 우리 시대문학의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의문을 새삼스레 제기할 만한 때이다. 90년대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소설들은 무엇보다도 기법면에서 종래의 대중소설보다 세련되었고, 세계관이나 소재의 측면에서도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90년대 들어 베스트셀러목록에 올라있는 소설들을 일별해보면 몇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유형화해볼 수 있다. 1, 「동의보감」을 비롯한 「역사인물이야기류」, 2, 전통적인 대중소설류인 「사랑과 성공」(시드니 셸던) 혹은 좀더 본격적인 「사랑과 결혼」 주제의 소설(앤 타일러의 「종이시계」가 슈퍼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직접적 소재로 하는 정치소설·기업소설. 4, 과학소설. 5, 추리소설의 변형인 각종 드릴물(심리드릴러, 정치군사드릴러, 의학드릴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대중소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학적 완성도가 높고, 좀더 복합적 수준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뒤의 두가지 경향을 대표하는 소설들에 주목하려고 한다. 과학소설로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유라기 공원」, 드릴러물로 토마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이 각각 이 두경향을 대표한다고 본다.

이러한 형식의 원류는 말할 것도 없이 탐정소설이다. 이러한 추리적 기법은 추리소설의 변형인 심리드릴러 「양들의 침묵」뿐만 아니라 과학소설인 「유라기 공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학소설의 붐이 일 조짐이 보인다. 아이작 아시모프와 아더 클라크의 작품같은 과학소설의 고전들이 다수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북거일의 「대체역사 소설」이 이 과학소설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춘문예에 당선작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과학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는 과학지식의 보급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과학적 소재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출현, 공상과학영화의 상업적 성공, 늘어난 소득과 여가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찾는 경향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소설이 가진 긍정적 의미를 말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기발함의 추구가 곧 현실적 역사적 의미의 탈각과 경박화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소설이 주목할 만한 독자층을 형성하게 된 우리시대의 문화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다. 우선 우리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는 기본적으로 시각문화라는 점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삼투시킨 소설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위의 두소설들도 대표적인 예이다. 공포물의 본령은 영화이며, 「양들의 침묵」의 상업적 성공은 그 영화의 성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유라기 공원」을 읽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공상과학영화를 상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소설들을 읽노라면, 왜 대중소설이 그토록 영화의 원작으로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상업적 성공을 잃지 않고 있는지 그 비결을 알 법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적 이유는 소설속에서는 '값싼, 돈 안드는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중소설을, 그것도 미국대중소설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생산적 비판을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문화를 지배하는 힘이 다. 대중소설은 인간의 현실적 욕망을 반영하는 데 뛰어나다. 그러나 그 욕망을 비웃으면서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의 몫인 것이다.

— 최태원 기자